

전문가칼럼

## 디지털 회의 문화, 업무에 효율을 더하다!

다양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해온  
회의 문화의 현주소와 그 미래를 전망해봄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회의 문화 구축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 디지털 회의 문화, 업무에 효율을 더하다!

## ■ 회의 문화의 핵심, '커뮤니케이션'과 '공유'

제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며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회의 문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과거의 회의 문화는 종이를 직접 넘기며 발표하는 동시에 아날로그 차트나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여 구성원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지우며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해 빔프로젝터와 파워포인트가 회의의 필수 도구가 되어 그 과정을 돕고 있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현재의 회의 방식은 여전히 회의 준비부터 정리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쉽고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회의 방식에서의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공간을 넘어 일체감을 가진 공유성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 ■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온 회의 방식

기업 내 회의의 효율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며 회의 방식은 꾸준히 변화해 왔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회의실에는 IT 기기가 대대적으로 보급되었고, 회의 공간은 이를 통해 한차례 탈바꿈했다. 빠른 정보 전달과 편리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같은 미디어 기기가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 후반에는 팀원들이 여럿이 협업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회의 공간은 다시 한 번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존 빔프로젝터 대신 벽면 부착형 미디어 회의 시스템과 이동 가능한 독립형 미디어 회의 시스템이 적용되며 한 대의 장비로 여러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IT 기술과 하드웨어 발전을 바탕으로 모바일 및 스마트 기기가 진화하며 회의 공간도 진화하고 있다. 무선통신의 고속화·클라우드 컴퓨팅의 상용화·모바일 워킹(Mobile Working)에 대한 니즈 상승이 스마트 시장의 성장을 이끌며, 회의 공간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한 상호작용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을 통한 신속한 상호작용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패드에 적기만 하면 필기 내용을 PC로 실시간 전달해주는 기기가 출시되며 사용자의 시간과 자원을 절약시켜주고 있다.

더불어 ‘로지텍 스마트독(Logitech® SmartDock)’에서는 태블릿을 결합한 화상 회의 기기를 출시하여 공간에 제약 없는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돕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기기들은 회의공간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주는 동시에 연결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검색·저장·편집 같은 능동적 행위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즉 다양한 구성원의 동시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작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해지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던 과거의 회의 문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변모했다. 이제 사용자는 소통 과정 속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모호성을 최소화 시키고 정보 처리의 신속함을 더함으로써 생산성과 성과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출처 : Logitech

## ■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플립(Flip)의 등장!

2018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최초 공개된 신개념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Interactive Display)를 통해 회의 문화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된 ‘플립(Flip)’은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화이트보드를 발전시킨 형태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기이다. 이제는 회의의 내용을 번거롭게 쓰고 지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동료들과 신속하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의 등장으로 회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회의의 번거로운 절차와 비효율적인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자연스러운 협업을 위해 사무실은 점점 더 열린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원하는 때에 즉시 그 자리에서 ‘스팟(Spot)성 미팅’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처럼 변화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협업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쓰고 지울 수 있는 ‘보드(Board)’의 역할과 자신이 가진 디바이스의 화면을 손쉽게 연결하여 띄어놓고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Display)’의 역할을 접목한 스마트한 회의 도구 ‘플립’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출시된 ‘협업 도구’라고 할 수 있다.

## ■ 플립이 만들어갈 새로운 회의 문화

플립은 생산적인 회의에 도움을 주며 주어진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플립이 가진 이동성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준다. 또 회의실 벽면에 붙어있던 기존 회의 도구의 특성과 달리 플립은 회전이 가능한 이동식 스탠드로 사용의 편리함을 더했다.



특히 플립에는 화이트보드의 마커 펜 역할을 하는 ‘패시브 펜(Passive Pen)’이 함께 제공된다. 이는 아날로그 감성을 살린 것으로 실제 종이 및 칠판에 필기하는 것과 유사한 필기감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회의 환경을 만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보드 사용 중 급하게 손으로 필기 내용을 지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플립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착안하여 일부분만 빠르게 지울 땐 손가락으로, 전체 내용을 지울 땐 손바닥으로 지울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 아날로그 형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전환된 디지털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플립은 다수의 기기에 내용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즉 클라우드(Cloud)를 이용하여 회의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더불어 Wi-Fi, NFC, HDMI, USB 등 다양한 통신·데이터 전송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사무용 IT 기기와 쉽게 연결하여 자료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 덕에 회의 진행 중 기록하는 필기와 자료들을 회의를 마친 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다

최근 플립은 하만의 화상회의 솔루션 AMX Acendo와 연동하여 회의 과정 중 사용자의 편의성과 집중력 등을 높일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회의 도중 다른 공간에 있는 팀원과의 화상 회의나 영상을 통한 설명이 필요할 때, 풍부한 음향이 함께 제공된다면 팀원들의 집중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언어는 파란색을 ‘푸르스름한’, ‘푸르딩딩한’ 등으로 표현할 만큼 다의적인 표현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모호성을 해소시키기에 청각은 중요하게 작용된다. 예를 들어 색 표현이 중요한 디자이너의 경우, 회의 과정에서 청각과 시각을 함께 전달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즉 플립은 AMX Acendo와의 연동을 통해 회의 과정에서의 현장감과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 ■ 디지털 회의 문화가 가져올 성과와 미래



회의 방식은 계속해서 변화해왔으며 현재도 디지털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회의 문화는 회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커뮤니케이션’과 ‘공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아이디어 공유를 도우며 최고의 협업 솔루션으로 꼽히고 있는 디지털 회의 문화는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기술과 만나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회의 문화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또 이를 통해 어떤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인지 미래 모습이 기대되는 바이다.

**위 내용은 삼성닷컴 비즈니스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amsung.com/sec/business/insights/?column-report>

### 비즈니스정보서비스 신청 안내

다양한 맞춤형 비즈니스 정보와 프로모션 정보를 이메일/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메일 본인 인증 절차만으로 비즈니스 업무에 유익한 각종 자료를 열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해당 필진의 개인적 소견이며,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실린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pert-Column-October-2018

Copyright © 2018 삼성전자주식회사